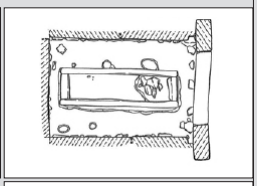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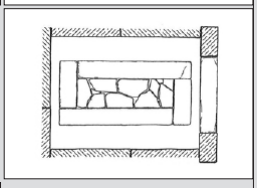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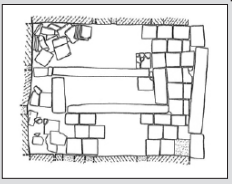
http://doi.org/10.20292/jcich.2017.23.63

강화 고려왕릉의 피장자 검토

A Study of Persons Buried in the Royal Tombs of the Goryeo Dynasty in Ganghwa

이 상 준
국립문화재연구소

Ⅰ. 머리말

Ⅱ. 피장자 비정과정과 문제점

Ⅲ. 강화 고려왕릉의 구조와 출토유물

1. 능역
2. 석실
3. 유물

Ⅳ. 왕릉 간 축조 선후관계와 위계

1. 축조의 선후관계
2. 피장자의 위계

Ⅴ. 피장자의 비정

1. 순경태후 가릉과 성평왕후 소릉
2. 희종 석릉과 원덕태후 곤릉
3. 인산리 석실분과 연리 석실분

Ⅵ.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재연구원의 2017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강화에는 고려시대 왕릉으로 판단되는 7기의 석실분이 남아 있다. 이중 4기는 피장자가 비정되어 있는데, 고종 홍릉, 순경태후 가릉, 희종 석릉, 원덕태후 곤릉이 그것이다. 이 중 고종 홍릉은 피장자 비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나 나머지 3기의 왕릉은 문헌과 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장자 비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먼저 현재의 가릉은 주변에서 능내리 석실분이 발굴되면서 과연 어느 것이 가릉인지에 의문이 든다. 두 무덤을 비교해 보면 능내리 석실분이 먼저 축조되었고, 위계도 높다. 그리고 출토인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피장자는 모두 여성이다. 강화에서 사망한 3명의 왕비 중 위치비정이 이루어진 원덕태후를 제외하면, 상기 두 무덤은 순경태후 가릉과 실능한 성평왕후 소릉일 가능이 높다. 두 사람 중 피장 당시 위계는 순경태후가 높았으므로 결국 능내리 석실분이 가릉이고, 현재의 가릉이 성평왕후 소릉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희종 석릉과 원덕태후 곤릉은 강화부를 기준으로 볼 때 석릉이 가깝고 곤릉이 먼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피장자 비정은 그 반대이다. 발굴결과 드러난 능역과 석실의 규모, 치장정도, 출토유물을 검토해 보면 현재 곤릉이 위계가 높다. 상기 두 사람의 피장당시 위계는 비록 폐위된 왕이기는 하였으나 희종이 높았으므로 결국 현재의 곤릉이 희종 석릉이고, 현재의 석릉이 원덕태후 곤릉인 것으로 본다. 이럴 경우 문헌상의 위치 기록과 일치한다.

상기 무덤 외에 강화천도 당시 재궁을 옮긴 세조와 태조의 무덤, 그리고 재이장한 개골동 왕릉을 포함하면 강화에 남아 있어야 하는 고려왕릉은 모두 9기이다. 이 중 결실된 2기의 개골동 왕릉을 제외하면 7기가 남아 있어야 하며, 실제 그렇게 남아 있다. 이중 홍릉을 비롯한 5기의 석실분은 피장자를 비정하였으므로 결국 남은 인산리 석실분과 연리 석실분은 세조와 태조의 천도 당시 이장한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주제어 : 고려왕릉, 석실분, 능역, 피장자, 능내리 석실분, 곤릉, 가릉, 석릉, 인산리 석실분, 연리 석실분

Ⅰ. 머리말

고려의 다양한 묘제 중 하나인 석실분은 고려의 도성이었던 개성과 강화에만 분포하는데 능역의 구성과 석실의 구조, 출토유물 등의 위계가 동시대 다른 무덤과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당대 최고위 계층인 왕족의 무덤, 즉 왕릉으로 알려져 있다(이희인 2006; 장경희 2008; 김인철 2010; 이상준 2012).

『高麗史』를 비롯한 문헌에는 87기의 陵號가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왕릉은 58기 정도이다. 이 중 피장자가 비정되어 있는 왕릉은 31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장자가 누구인지 모른 채 주변의 대표적인 왕릉이나 지명에 일련번호를 붙여 능호로 부르고 있다. 강화에도 이런 고려왕릉이 7기 남아 있는데, 이 중 희종 碩陵, 원덕태후 坤陵, 순경태후 嘉陵, 고종 洪陵은 피장자가 비정되어 있고, 나머지 3기의 왕릉은 해당 소재지의 지명을 능호로 사용하고 있다.[1)]

한편 고려왕릉의 피장자 비정은 『高麗史』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이하 輿地勝覽)의 기록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실능 혹은 실명을 거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몇 차례 재비정의 과정을 거쳤다. 문제는 이런 피장자의 비정과 재비정 과정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일 지역 내에 여러 기의 왕릉이 존재하는 경우 피장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강화 고려왕릉에 대한 피장자 비정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헌마다 왕릉의 위치가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등의 오류가 확인된다.

필자는 최근 능내리 석실분의 성격을 검토한 바 있는데(이상준 2016), 이 과정에서 가릉의 피장자가 순경태후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아울러 강화 고려왕릉의 피장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고는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강화 고려왕릉의 피장자 비정과정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고고자료의 분석을 통해 왕릉 간 축조의 선후관계 및 위계를 따져 강화에 남아 있는 7기의 석실분에 대한 피장자를 재비정해 보고자 한다.

1) 본고는 강화 고려왕릉의 피장자 비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 비정 능호에 傳자를 붙여 서술하는 것이 마땅하나 서술의 편의상 기 비정 능호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Ⅱ. 피장자 비정과정과 문제점

『高麗史』 兵志 圍宿軍 條에 의하면 59기의 왕릉에 위숙군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고려 태조 顯陵부터 제16대 예종 裕陵과 문경태후 綏陵까지는 위숙군을 배치하여 관리가 이루어졌다. 이후 약 200년간 고려왕릉에 대한 관리기사는 보이지 않으며, 대신 도굴기사들만 확인된다. 이 점은 상기 위숙군 조를 제정하였다고 판단되는 제17대 인종 때까지는 선대 왕릉에 대한 관리가 나름 철저하였으나[2] 이후 무신정권의 집권, 강화천도, 몽골 침입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으로 관리가 소홀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도굴이 있었다.[3]

조선조에 들어서도 고려왕릉에 대한 관리는 고려 말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태종은 태조를 비롯한 前朝 8왕의 능에만 수호인을 두었고[4], 세종은 태조 현릉, 현종 宣陵, 문종 景陵, 원종 韶陵에만 수호인을 두고 나머지 왕릉은 소재지의 官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였다.[5] 때문에 상기 네 명의 왕을 제외한 나머지 왕릉은 관리가 소홀해지게 되었고, 구전으로 왕릉의 위치 등이 전승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이 『輿地勝覽』(1530)이다. 이후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을 거치면서 전조 왕릉은 다시 방치되다시피 하였다. 양란 이후 고려왕릉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는 현종이었다. 현종은 즉위 초인 1662년부터 고려왕릉의 보수 및 관리, 암매장지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조사는 숙종 때까지 이어졌고, 그 전말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麗朝王陵謄錄』(1638~1690)이

2) 필자는 이 기사가 고려 제17대 인종 때 1차 제정되었고, 이후에 충혜왕 이후 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위숙군의 수가 예종 유릉과 문경태후 수릉에 각 6인을 두었고, 인종의 직계존속인 문종 景陵과 숙종 英陵에 각 4인을 배치하고 있어 여타 2인의 위숙군을 배치한 왕릉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 점은 인종이 자신의 부모와 직계존속의 왕릉을 특별히 관리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종 이후 충렬왕대까지 약 200년간의 재위 왕릉에는 관리인을 두지 않다가 충선왕 德陵과 충혜왕 永陵에 2인의 위숙군을 두었다고 하기 때문이다(이상준 2016).

3) 『高麗史』에 보이는 도굴기사는 다음과 같다. 희종 4년 8월에 안종 武陵, 고종 3년에 공예태후 順陵, 고종 24년 3월 몽골군에 의해 파괴된 명종 智陵 수축, 고종 40년 강종 厚陵과 睿陵 도굴, 고종 43년 후릉, 고종 46년 후릉과 예릉 재도굴, 충렬왕 14년 목종 義陵과 恭陵 도굴, 충렬왕 22년 최우 무덤 도굴, 충혜왕 2년 제국대장공주 高陵 도굴, 충숙왕 16년 4월 눌륜공주 무덤 도굴, 공민왕 14년 昌陵이 도굴되었다.

4) 『太宗實錄』 6年 3月 24日. 命置高麗八陵守護人:太祖 顯陵三戶, 惠王、成王、顯王、文王、忠敬、忠烈、恭愍王陵各二戶, 每戶給田一結, 禁樵採及火焚.

5) 『世宗實錄』 14年 2月 4日. 禮曹啓: "高麗 太祖 顯陵, 請拔去陵上雜木, 每歲寒食省陵。 顯宗、文宗、忠敬王陵, 亦禁耕樵, 其餘陵, 除守陵軍, 令所在官禁其耕樵。且於陵域, 禁葬雜人" 從之。

다.[6] 이후 영 · 정 · 순조와 고종 때 고려왕릉에 대한 간헐적인 관리가 있었다.[7]

한편 강화 고려왕릉에 대하여는 『高麗史』에서 강도시기 사망한 왕과 왕후의 사망 시점과 빈전의 설치유무 등을 밝히고 있으나 왕릉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강화 왕릉의 위치를 최초로 기록한 자료는 『輿地勝覽』이다. 동서에는 강화 소재 4기 왕릉의 방위와 거리를 강화부를 기준으로 기록해 놓았다.[8] 그리고 조복양[9]이 강화유수로 봉직하였던 1664년과 1665년에 강화 소재 4기의 고려왕릉을 찾아 다시 쌓았다는 사실이 이형상이 편찬한 『江都誌』(1696)를 비롯한 다수 문헌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숙종 1년(1675)의 『麗朝王陵謄錄』에는 강화 고려왕릉의 실태가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홍릉과 가릉은 방위와 강화부에서의 거리, 능역 내 시설물의 잔존상태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10] 이후 『강도지』에 강화소재 4기 왕릉의 소재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輿地圖書』(1757~1765)에서는 상기 4기 왕릉의 거리와 소재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김노진이 편찬한 『江華府志』(1783)에도 4기 왕릉의 방향과 거리가 기록되어 있다.

이상 강화 고려왕릉의 위치를 기록한 문헌은 [표 1]과 같으며, 이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6) 『麗朝王陵謄錄』 壬寅六月十一日 麗朝陵寢摘奸書啓步數定奪 '啓內臣於本月初六日夕到開城府卽爲招致本府事知書吏及古老人四伍輩多般開諭以摘奸本意使之不爲隱伏隨聞直告爲白遣且以輿地勝覽所載在諸陵憑考搜得爲白在如中所見諸陵四十三陵是白乎等以 書 啓'

7) 순조 때에는 고려왕릉의 현상을 보고토록 한다거나 수리한 기록들이 보인다. 그리고 고종 4년에 57의 고려왕릉을 봉축하고 표석을 세웠음이 태조 현릉에 세워놓은 高麗顯陵修改記實碑에서 확인된다. 이후 1916년 일인학자 今西龍은 고종 4년의 표석을 근거로 고려왕릉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에 기록해 놓았다.

8) 『輿地勝覽』 第12 京畿 江華都護府 陵墓. "高麗高宗弘陵在府西六里號弘陵 元德太后陵在府南二十三里高麗高宗〈康宗의 誤記〉妃號坤陵 高麗熙宗陵在府南二十里號碩陵 順敬太后陵在府南二十四里高麗元宗妃號嘉陵"

9) 조복양은 현종 5년(1664)부터 현종 6년(1665)까지 강화유수로 봉직하였다. 그는 현종 3년 이후 조정에서 논의하였던 前朝 왕릉을 찾고 살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후 조복양은 예조판서로 나아가게 되는데 1668년 현종개수실록에는 조복양이 고려왕릉에 대해 3년마다 예관을 파견하여 살피는 일을 다시 이행하고 있다. 그만큼 조복양은 고려왕릉에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10) 『麗朝王陵謄錄』 乙卯十月初四日 麗朝諸陵摘奸書啓 "…所謂洪陵在本府西伍里許而攔干竹石八箇石獸三雙將軍石四軀遺存丁字閣及曲墻基址並爲依然嘉陵在本府南三十里許而石獸一雙攔干竹石一箇臺石二箇遺存其餘各樣石物散埋而塋域廣大是白乎旀碩陵及坤陵僅存陵形丁字閣基址亦爲依然而陵上前面隧道石門露出是白乎等以所見未安爲先修補事分付本府 爲白有在果已上四陵明是前朝王陵…"

[표 1] 문헌상의 강화 고려왕릉의 방위와 거리

區分	嘉陵	碩陵	坤陵	洪陵	附
① 輿地勝覽 (1530)	在府南二十四里	在府南二十里	在府南二十三里	在府西六里	
② 麗朝王陵謄錄 (1638–1690)	在本府南三十里			在本府西五里	
③ 江都誌 (1696)	在府南上道	在府南位良洞	在府南鎭江山東麓	在府西 高麗山東麓	四陵我顯宗朝留守 趙復陽啓聞修築 其後又令定限限內 偷葬者並掘移
④ 輿地圖書 (1757–1765)	在府南 三十四里 上道面	在府南二十里吉祥面	在府南二十三里 吉祥面	在府西六里 高麗山南麓	四陵趙復陽爲留守 時尋出改封築每式 年遣禮曹郎巡審王 陵參奉逐年來審
⑤ 江華府志 (1783)	在府治南 三十五里	在府治南二十一里	在府治南二十三里	在府治西六里	四陵皆趙復陽留守 時 尋出改封麗陵之 在本府不止此 而乖域陵夷 今不可徵

우선 홍릉은 ①, ②, ④, ⑤에서 강화부 서쪽 5~6리로 기록되어 있고 ③, ④에서 고려산 동록 혹은 남록이라 하였다. 이를 미루어 보아 관련 내용상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일 무덤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 강화부 서쪽에서 왕릉으로 볼 석실분은 현재의 홍릉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잔존하는 능역의 치장석물로 볼 때에도 왕릉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단순 오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종 홍릉의 위치 비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가릉은 강화부를 기준으로 ①은 남쪽 24리, ②는 남쪽 30리, ④는 남쪽 34리, ⑤는 남쪽 35리로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③은 거리는 언급하지 않은 채 강화부 남쪽 상도에 있다고 하였고, ④역시 상도면에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①에서 24리가 ②이후 어떤 연유로 30~35리로 기록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리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나 동일 무덤을 지칭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거리가 다른 것은 당시 방리명인 상도(면)의 거리가 30~35리로 기록되어 있어[11] 정확한 거리를 측정 없이 방리의 거리를 그대로 대입한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①, ④의 산천조에 적시된 가릉포는 "관아 서쪽 32리에 있다. 그 근원은 마니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여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하였고, ④에서 "가릉포 윗쪽에 가릉이 있기 때문에

11) 『江都誌』 山川條, 『輿地圖書』 山川條.

가릉포라 이름 붙였다" 하였으며, ④의 능침조에 "가릉이 관아의 남쪽 34리에 있는 상도면에 있다"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가릉포는 상도면에 있고, 가릉포의 윗쪽에 가릉이 있으며, 물의 근원은 마니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③과 ④에 첨부된 지도를 참조하면 상도(면)는 마니산과 관련이 없다. 마니산은 하도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③의 지도에 가릉포는 진강산과 마니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Y'자상으로 합류하여 바다로 입수하는 지점에 표기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상도가 표기되어 있다. 이런 지리적 인식이 상기한 가릉포의 근원을 마니산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마니산이 위치한 하도면 일대에 대한 고고조사에서 석실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가릉이 위치한 능내리 서편 해안에 가릉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제는 현재 가릉의 북편 70m 지점에 또다른 석실분인 능내리 석실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일지역에 두 개의 왕릉이 존재하는 것으로 둘 중 어느 무덤이 순경태후 가릉인지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의 무덤이냐는 것이다.

[그림 1]『江都誌』의 지도 일부

석릉과 곤릉은 ①에서 강화부 남쪽 20리와 23리로 기록되어 있다. ②의 숙종 1년(1675)의 조사 전말에는 "…석릉과 곤릉은 능의 형태만 겨우 남아 있는데 정자각터는 전과 다름없고 왕릉 앞쪽의 길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여 당시 두 능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③에서는 석릉의 위치가 위량동에 있고, 곤릉은 진강산 동록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④에서는 두 능 모두 길상면에 있다고 하였다. ⑤에서는 석릉이 강화부 남쪽 21리, 곤릉이 23리라 하였다. 이 기록 중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두 능은 강화부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강화부에서의 거리가 석릉이 곤릉보다 가까웠다는 점, ④의 두 능 소재지가 길상면이었다는 점 등

이다.[12] 그러나 석릉의 소재지가 위량동이었다는 ③의 기록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③의 지도에는 위량동이 상도의 북편이자 건평천의 북편이다. 이곳 일대에서 확인된 석실분은 인산리 석실분이 유일하므로 혹여 인산리 석실분을 석릉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석릉이 강화부에서 20~21리에 있다고 한 여타 문헌기록과 맞지 않으므로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림 2] 輿地圖書(1760)의 강화지도 일부

[그림 3] 18세기 후반 강화지도

한편 상기 기록에서 일관된 사실 중 하나는 강화부에서의 거리가 석릉이 곤릉보다 가깝다는 점이다. 그러나 現비정 왕릉의 강화부에서의 거리는 그 반대이다. 최소한 상기 기록의 강화부에서의 거리만으로 볼 때에는 피장자 비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잘못 비정된 시기는 ③부터 ⑤까지 부기된 조복양이 고려의 능묘를 찾아 다시 쌓았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조복양이 강화유수로 재직하였던 1664년부터 1665년 사이에 위치 비정이 있었고, 이때 잘못 비정된 능호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상기 문헌들이 저술할 당시의 도로 상황이나 도보상의 거리는 현재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도로가 표기된 『江華地圖』를 참조하면 강화부에서 곤릉과 석릉으로 가는 최단거리 길은 강화산성 남문에서 출발하여

12) 지금은 두 능이 양도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④를 저술할 당시에는 상기 두 능이 길상면 길정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현재 두 능은 길상면의 북단 양도면과 경계부분에 위치해 있다.

현재의 선원면을 지나 불은면 삼거리에서 길정리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 길은 『輿地勝覽』이 저술할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어도 거리상으로는 현재의 곤릉과 석릉이 뒤바뀌어 비정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상의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 4기의 왕릉 이외에 아직 무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평왕후 소릉은 어디인지 그리고 피장자가 비정되지 않은 채 소재지의 지명에 따라 불리고 있는 인산리 석실분과 연리 석실분의 피장자는 누구인지가 궁금하다.

Ⅲ. 강화 고려왕릉의 구조와 출토유물

1. 능역

강화 고려왕릉의 능역 구성은 개성의 고려왕릉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특징[13]이 잘 반영되어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차이점도 발견된다.

우선 왕릉의 입지와 평면형태는 일반적 특징에 부합된다. 발굴된 4기의 왕릉 모두 주산인 진강산을 등진 구릉의 남사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능역의 평면형태가 남북이 긴 장방형이다. 그러나 능역의 규모와 평탄면의 단수는 차이가 있다. 능역의 규모는 가릉 9.2m×12.5m, 석릉 20m×32m, 곤릉 14m×34m, 능내리 석실분 22m×40m이다. 단수는 가릉이 2단, 곤릉과 석릉은 3단과 5단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가릉은 능역 남단의 정자각터를 발굴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곤릉과 석릉은 관련 도면을 재검토해 본 결과 모두 4단으로 판단된다. 3단인 곤릉은 2줄의 계체석렬 간 높낮이 차가 180㎝에 이르고 있어 두 석렬 사이에 또다른 석렬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5단으로 본 석릉은 4단이 정자각의 정전터이며, 5단은 배전

13) 고려왕릉은 主山을 등진 얕은 구릉의 남사면에 입지한다. 보통 가로 20m, 세로 40m의 장방형으로 구획하고, 여기에 3~4단의 평탄면을 조성한다. 평탄면 최상단에는 지하식 석실과 12각 호석을 갖춘 봉분, 그리고 난간과 석수, 망주석 등이 위치하며, 2단에는 중축선상에 장명등을 설치하고 그 좌우에 석인상을 세운다. 그리고 3단의 좌우에 다시 한 쌍의 석인상을 세우며, 4단의 중축선상에는 정자각을 건립한다. 그리고 석실은 지하식의 횡구식단실묘이다. 동·서·북편의 벽석은 장대석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쌓고, 그 위에 3장의 대형판석을 덮어 천장을 만들었다. 남벽상에는 좌우에 문주석을 세워 입구를 만들고 1장의 방형판석을 세워 입구를 막았다. 석실 바닥 중앙에 관대를 놓고 나머지 바닥에는 전돌이나 박석을 깔았으며, 동서장벽 남단의 최상단과 최하단에 목제문의 引枋材를 끼우기 위한 방형의 홈을 대칭되게 파 놓았다. 그리고 벽면과 천장에 회칠을 하고 벽화를 그렸다.

터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봉분 기저부의 치장석물인 호석은 8각인 석릉과 가릉, 12각인 곤릉과 능내리 석실분으로 구분된다. 8각 호석의 경우 여타 고려왕릉에서 확인되지 않는 예외적인 것이다. 8각 호석이 개보수 과정에서 축소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외부 박석이나 적석한 할석과의 축조공정을 고려하면 원래부터 8각으로 기획하여 축조한 것이다. 석인상은 가릉 2개, 석릉 2개, 곤릉 3개 그리고 능내리 석실분에서는 2개소의 석인상을 세우기 위한 기초적심이 확인되었다.[14] 4단 구성의 고려왕릉은 모두 2단과 3단에 각 2구씩의 석인상을 배치한다는 점에서 강화 고려왕릉은 모두 4구의 석인상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곤릉에서 출토된 3구의 석인상은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 석수는 가릉 2마리[15], 능내리 석실분 2마리, 곤릉 1마리가 확인되었다. 이 중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능내리 석실분이다. 곤릉의 석양은 머리만 출토되었는데 실물과 같이 정교히 조각하였다는 점에서 능내리 석실분의 석양과 표현수법이 대조적이다. 난간부재는 4기 왕릉에서 모두 출토되어 봉분 가장자리를 따라 난간을 돌렸음을 알 수 있다. 난간 동자기둥에서 확인되는 여의두문 조각은 능내리 석실분이 가장 화려하다.

정자각은 곤릉과 능내리 석실분에서 확인되었다. 능내리 석실분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로 판단된다. 정전의 측면은 확인된 초석적심석군과 제3단 남편 축대와의 거리를 고려하면 1칸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좁기 때문에 1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배위청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규모이다.[16] 곤릉은 막돌초석 4매가 동일축선상에서 확인되었고, 이 초석렬을 중심으로 남북에 무문전이 넓게 깔려 있는데, 이 무문전의 포설범위가 정전의 범위로 판단된다. 정전은 3칸, 2칸의 규모로 추정할 수 있으며, 중앙 어칸은 308㎝, 좌우 협칸은 216㎝이다. 건물 내부에 기둥이 서 있는 형태로 복원되기 때문에 통칸으로 된 다른 왕릉과 차이가 있다.

---

14) 1916년의 『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에는 능내리 석실분에 "…한 쌍의 석인이 있는데 체구는 방주형에 가깝고 정면 약 8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가릉에 대하여는 난간석과 석수의 숫자까지 명확히 언급하면서 석인상의 존재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점은 당시 가릉에 석인상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가릉에는 석인상의 대석 2개가 봉분 전면 제2단 평탄대지 좌우에 놓여 있다. 따라서 현재 가릉에 서 있는 석인상은 원래 능내리 석실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며, 이후 어느 시점에 전가릉으로 이동하여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15) 가릉의 경우 봉분 후방 북서, 북동지점에 각 1마리의 석수를 배치해 놓았는데 모두 석호이다. 이는 석호와 석양을 교차 배치하는 고려왕릉의 일반적 특징에 맞지 않으며, 석수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다는 점에서 원위치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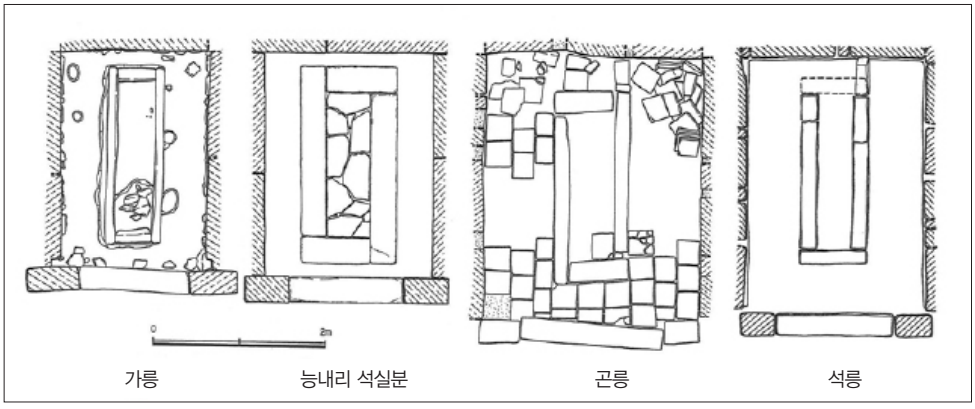
16) 고려왕릉의 정자각 규모는 『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의 도면을 검토한 결과 정전 3칸×1칸, 배전 1칸×1칸이 일반적이다.

[표 2] 능역의 구조 현황 (단위 : ㎝)

구분		능내리 석실분	곤릉(1239)	석릉(1237)	가릉(1237)	홍릉(1259)
규모		2,200/4,000	1,400/3,400	2,000/3,200	920/1,250	1,750/3,500
단수		4	3(4단추정)	5(4단추정)	2(?)	3(1916년3단)
1단	곡장	○	×	○	×	×(1662년○)
	호석	12각	12각	8각	8각	?
	난간	○	○	○	○(1916년)	○(석축재사용)
	석수	2(범,양)	1(양)	×	2(범,범)	×(1916년4점)
	망주석	×	×	×	×	?
2단	석인상	×	×	2(1점 제1단)	2(1916년 ×)	?(1662년4점)
	장명등	×	×	×	×	?
3단	석인상	×(1916년 2점)	×	×	×	?
4단	정자각	○	○	?	×	?

2. 석실

석실은 모두 세로가 긴 장방형이며, 규모는 평면적이나 체적에서 곤릉(8.1m^2, 17.82m^3)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석릉(7.26m^2, 16.7m^3), 인산리 석실분(6.46m^2, ?m^3), 능내리 석실분(5.1m^2, 10.76m^3), 가릉(4.34m^2, 7.6m^3)의 순이다. 석실 바닥의 중앙부에는 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대는 모두 석주형 석재 4매를 조립한 형태이다. 관대의 내부 평면적은 능내리 석실분 2.55m^2, 곤릉 1.83m^2, 석릉 1.76m^2, 가릉 1.44m^2 순이다.



[도면 1] 강화 고려왕릉 석실 평면도

벽석은 사용된 석재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할석을 사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다듬한 장대석으로 사용한 것이다. 전자는 석릉과 곤릉, 인산리 석실분이고 후자는 가릉과 능내리 석실분이다. 장대석재 벽석인 가릉과 능내리 석실분은 5단으로 쌓았고, 할석재 벽석인 석릉은 7단, 곤릉은 9단으로 쌓았다. 벽석을 할석으로 축조한 곤릉과 석릉이 장대석으로 축조한 능내리 석실분과 가릉보다 석실의 크기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천정은 모두 3개의 대형판석을 덮었고, 벽면과 천장에는 전면적으로 회칠을 하였다. 하지만 고려왕릉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성좌도나 벽화는 확인되지 않았다.[17]

[표 3] 석실의 구조 현황 (단위:㎝)

구분		능내리 석실분	곤릉(1239)	석릉(1237)	가릉(1237)	인산리 석실분
위치		지하	지하	지하	지상	지하
장축방향		N–S	N–S	N–S	N–S	N–S(?)
규모		260×196×203	310×250×220	330×220×230	255×168×178	340×190×?
평면형태		장방형	장방형	장방형	장방형	장방형
바닥	관대	228×112	215×85	220×80	205×70	?
	시설	×	바닥 전	×	×	?
벽	석재	장대석	할석	할석	장대석	할석
	단수	5	9	7	5	?
	문주석	○	○	○	○	○
	문지방	○	○	○	○	○
	상하홈	○	○	○	○	?
	회미장	○	○	?	○	?
	벽화	×	×	×	?	×
천장	천장	평(3)	평(3)	평(3)	평(3)	평(3)
	개석수	3	3	3	3	3
	회미장	○	○	?	○	?
	천장화	×	×	×	×	×
문	폐쇄석	방형판석	방형판석	방형판석	방형판석	방형판석

17) 다만 가릉의 서쪽 회벽 위에 적색 안료 일부가 남아 있어 벽화가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밖의 다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동서벽석과 문주석이 만나는 부분의 최상단과 최하단 석재에는 방형의 촉구멍이 하나씩 파여져 있다. 이 촉구멍의 이 용도에 대하여 일부 이견이 있으나 필자는 방형 홈이 상단뿐만 아니라 하단에도 있는 점, 홈의 크기가 10×20㎝로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상하에 각재를 끼워 인방재를 걸치고 여기에 목재문을 달았다고 보았다(이상준 2012).

3. 유물

고려왕릉에 부장되는 유물은 당시 능제에 맞추어 품목과 배설방법 등이 제도화되어 있었을 것이나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그 실상을 알 수 없다. 다만 고려 초기 왕릉에는 관대 좌우에 별도의 유물부장대가 남아 있어 부장품을 이곳에 배설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0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유물부장대의 설치가 생략되어 유물을 어떻게 부장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한편 부장품목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을 것이고, 그런 변화가 일부 확인되기도 한다. 예컨대 활촉형 금동제품은 초기 왕릉에서만 출토되며, 동전은 12세기 초 이후의 왕릉에서만 확인된다. 그러나 고려왕릉은 모두 도굴되었기 때문에 실제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은 환금성이 없어 도굴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것이거나, 크기가

[표 4] 석실의 구조 현황 (단위:㎝)

구분		능내리 석실분	가릉	석릉	곤릉
실용재	은제도자집	2			
	동곳				2
	쪽집게	1			
	구슬	129	10	28	3
위신재	골장식		2		
	옥장식		1		
공헌재	청자	4	2	21	8
	백자류		1		
	도기류	4	4		1
	원통형금구				1
	반구형장식	2			
	금동장식			3	2
	화형은장식	1	2		
	청동장식	4		2	
	은장식판	4		5	8
	은제고리	4			
	철제고리	3		15	
	철장식				2
	청동사		1		1(금)
	동전	7	86	3	21
	차축두				1
	은못	14			10
	청동못	17	4	1	11
	철못	34	23	177	600
	석간		3		
건축재	자물쇠(배목)	1		2	
	'U'자형철기		9		6
	와전	다수			다수

작아 쉽게 눈에 띠지 않는 유물들이 대부분이다.

강화 고려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장도, 족집게, 동곳 등의 실용재와 성복당시 피장자가 착장하였다고 생각되는 펜던트형장식품과 구슬 등의 위신재, 그리고 장례의 시작부터 마감까지 제례에 사용하였던 각종 장식재와 용기류, 동전, 석간, 차축두 등의 공헌재, 석실내부 치장에 사용된 'U'자형철기와 자물쇠, 정자각에 사용된 와전류와 같은 건축재로 분류된다.

이중 석실의 구조와 편년, 피장자의 위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유물은 청자와 못〔釘〕, 구슬, 'U'자형철기와 자물쇠 등이다.

청자는 도굴로 유실되고 파편들만 출토되었지만 기종, 생산지, 용도를 유추할 수 있는 일부 자료도 있다. 기종은 대접, 접시, 뚜껑, 향로, 잔, 호, 매병, 잔탁 등으로 다양하며, 석릉 출토 대접의 굽바닥에서 시문된 원문은 강진 사당리 요지에서 확인되는 부호이므로 생산지가 사당리임을 알 수 있다(한성욱 2003). 그리고 곤릉 묘도부에서 차축두와 함께 출토된 8점의 청자는 현문 폐쇄 이후 제례행위에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못은 금동제, 금제, 은제, 청동제, 철제 등이 있다. 철제는 관함의 조립이나 목제문 제작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며, 나머지는 목제 관함을 장식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특히 곤릉에서 600여개의 철제 못과 다수의 금은동제 못이 출토되었다. 가릉과 곤릉에서 출토된 'U'자형철기는 신종 陽陵이나 명종 智陵의 예로 볼 때 벽체와 천장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일정 간격으로 박혀 있었다고 판단되며(김인철 2010), 그 용도는 휘장이나 그림을 걸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이 유물이 출토된 왕릉의 경우 천장에는 성좌도는 잘 남아 있으나 벽화가 없다.

자물쇠의 부속구인 배목은 능내리 석실분과 석릉에서 출토되었다. 태조 현릉, 신종 양릉, 충정왕 聰陵 등에서 출토된 자물쇠는 석실 입구쪽에서 출토된 바 있는데 앞서 살펴본 벽석과 문주석이 만나는 부분에 파여져 있는 방형의 촉구멍과 함께 별도의 나무문을 달았음을 알게 한다.

Ⅳ. 왕릉 간 축조 선후관계와 위계

1. 축조의 선후관계

왕릉 간 축조의 선후관계는 평기와의 출토정황과 청자의 분석을 통해 살필 수 있다. 가릉 석실 내부에서 출토된 평기와는 벽석을 쌓아 올릴 때 벽석 틈새를 메우기 위한 고임으로 사용되었는데, 동일 문양의 기와가 능내리 석실분의 정자각터에서 출토되었다. 이는 가릉을 축조하면서 능내리 석실분의 평기와를 재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능내리 석실분이 먼저 축조되었다고 보았다(國立文化財硏究所 2007).

그리고 발굴된 4기의 왕릉 중 가릉을 제외한 3기의 석실분에서 청자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 청자들을 분석해 보면 우선 능내리 석실분에서 출토된 청자는 모두 순청자로 상감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운 비색의 청자항아리, 청자음각앵무문대접, 청자양각용문원형향로 등의 출토품은 순청자와 상감청자가 공반 출토한 곤릉과 비교할 때 양식적으로 앞서고 있으며, 절요접시는 석릉 출토품과 문양구성이나 기형은 유사하나 비색은 한층 유려하여 역시 선행하는 양식이다. 즉 능내리 석실분의 출토 청자가 곤릉이나 석릉 출토품보다 가장 선행한 양식임이 분명하다.[18] 문제는 곤릉과 석릉에서 출토된 청자의 선후관계이다. 직접 비교되는 유물은 화형전접시로 곤릉 출토품은 음각과 압출양각기법만 사용한 순청자인데 비해 석릉 출토품은 외측면에 모란문을 백상감하였다. 따라서 화형전접시만으로는 곤릉이 양식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곤릉 출토품에는 조각양각이 확인되지 않으나 석릉 출토품에는 조각양각이 확인되기 때문에 조각양각이 압출양각보다 선행한다는 청자의 일반적 편년안을 따르면 석릉이 양식적으로 선행한다(강경숙 2012). 따라서 능내리 석실분이 가릉, 곤릉, 석릉보다 먼저 축조되었고, 곤릉과 석릉은 현재로서는 선후관계는 판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19]

2. 피장자의 위계

피장자의 위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정자각의 규모와 석물의 치장정도, 석실의 규모와 구조, 출토유물 등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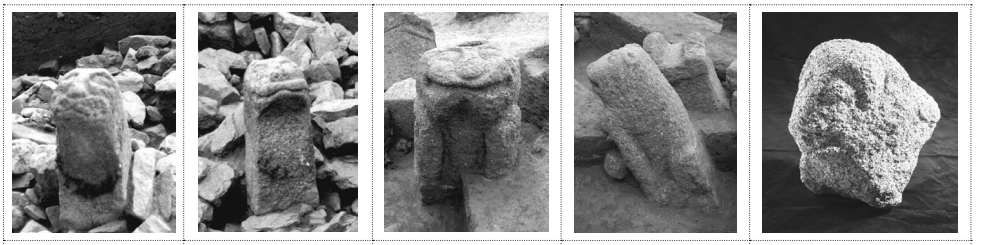
18) 능내리 석실분의 출토 청자는 곤릉이나 석릉보다 오히려 고운 비색을 간직하고 기벽이 얇고 날렵한 파주 혜음원지의 반양각연판문대접과 음각앵무문대접 등과 비견된다. 혜음원지는 몽고침입기 개경을 비롯한 경기 일대의 침탈이 극심하던 1231년경을 하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청자만으로 볼 때에는 능내리 석실분이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19) 발굴된 강화 고려왕릉 중 축조시기를 알 수 없는 능내리 석실분을 제외한 석릉(1237), 곤릉(1239), 가릉(1237)은 축조연도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출토유물로 편년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능내리 석실분이 여타 3기의 왕릉보다 먼저 축조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능역 내 시설물인 정자각은 능내리 석실분과 곤릉에서 확인되었다. 상호 비교를 통해 정자각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은 배전 정면의 주칸거리이다. 능내리 석실분은 주칸거리가 285㎝이고, 곤릉은 308㎝이므로 곤릉 정자각이 능내리 석실분보다 컸음을 알 수 있다.

호석은 능내리 석실분과 곤릉은 12각, 가릉과 석릉은 8각으로 조립되었다. 개성 고려왕릉의 경우 모두 12각으로 조립되어 있기 때문에 후대 개보수 과정에서 12각을 8각으로 줄였을 가능성이 상정되기도 하나 필자는 원래 8각이었던 것으로 본다. 발굴결과 주변에서 호석에 사용된 석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호석의 길이가 12각으로 조립된 석실분에 비해 길기 때문에 12각으로 조립할 경우 지금보다도 훨씬 큰 봉분이 만들어지므로 12각 호석을 갖춘 왕릉의 석실 크기와 비교했을 때에도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고 호석 주변에 부석이 시설된 석릉과 적석된 가릉의 예로 볼 때 호석의 개수를 축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20] 이런 호석 개수의 차이가 능제의 간략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만큼 피장자의 위계상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석수는 인접한 가릉과 능내리 석실분의 경우 조각의 섬세함에서 능내리 석실분이 우수하다. 두 능 모두 석수의 신체를 선조로 표현하여 크게 다르지 않으나 능내리 석실분은 석호와 석양의 구분이 명확하고 석양의 귀와 다리를 부조로 표현한 차이가 확인된다. 그리고 곤릉에서 출토된 석양은 실물과 같은 형상으로 섬세하게 조각하였다는 점에서 능내리 석실분의 석양과는 대조적이다. 난간동자주는 가릉의 경우 방주형 기둥의 상단에 2조의 침선을 사면에 모두 돌린 형태이나 능내리 석실분은 상단 돌란대석을 받치는 부분의 양측면에 여의두문을 섬세하게 조각해 놓아 훨씬 정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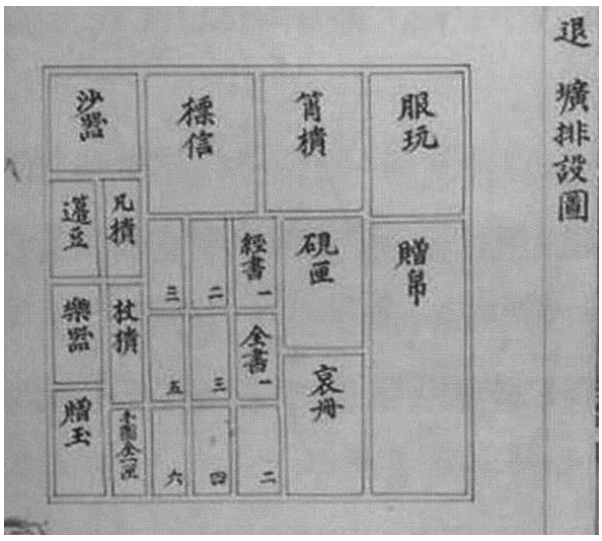
가릉(석호)	가릉(석호)	능내리(석호)	능내리(석양)	곤릉(석양)

[그림 4] 출토 석수

20) 개별 호석의 길이도 이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호석의 길이는 가릉 110㎝, 곤릉 80㎝, 능내리 석실분 116㎝, 석릉 100㎝이며, 호석 내부 직경은 가릉 320㎝, 곤릉 370㎝, 능내리 석실분 410㎝, 석릉 280㎝이다.

석실의 크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면적이나 체적에서 곤릉 〉 석릉 〉 능내리 석실분 〉 가릉의 순이다. 벽석을 할석으로 축조한 곤릉, 석릉이 장대석으로 쌓은 가릉과 능내리 석실분에 비해 규모가 크고 장대석을 사용한 능내리 석실분과 가릉은 5단으로 쌓아 올렸고, 할석을 사용한 석릉은 7단, 곤릉은 9단으로 쌓아 올렸다. 관대의 크기는 능내리 석실분 〉 곤릉 〉 석릉 〉 가릉의 순이며, 곤릉의 경우 관대 내외부 공간에 전면적으로 전돌을 깔아 놓았고, 능내리 석실분은 관대 내부에만 부정형 판석을 깔아 놓았다. 이러한 석실과 관대의 규모, 벽석의 단수, 바닥의 치장정도 등은 해당 석실의 위계를 보여준다.

출토유물 중 철제못은 곤릉에서 600점, 석릉에서 177점, 능내리 34점, 가릉 23점이 출토되었다. 철제못은 목관, 목함, 목제문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네 왕릉의 관대는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목관에 사용된 못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4기의 왕릉 모두 양장벽 상하단에 방형홈이 파여져 있어 나무문을 달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도 다수의 못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석실의 크기로 볼 때 관이나 목제문에 사용된 못의 수량은 한정적이다. 따라서 상기 두 곳에 사용된 못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목함(궤)의 제작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못의 수량은 목함의 수와 크기에 관계되어 있다고 본다. 즉 못이 많이 출토된 무덤은 그만큼 크거나 많은 목함을 부장하였을 것이므로 그만큼 부장유물이 많았을 개연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되는 자료는 다소 시기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健陵遷奉都監儀軌』이다. 여기에는 퇴광배설도와 함께 부장품을 품목대로 담은 궤의 크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퇴광 내에 부장품을 어떻게 매납하였는지, 그리고 궤의 크기에 따라 얼마나 많은 유물이 부장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21]



[그림 5] 『健陵遷奉都監儀軌』의 퇴광배설도

21) 이에 의하면 퇴광은 가로 六尺二寸四分, 세로 六尺一寸八分이다. 퇴광 속에는 筲橫, 沙器橫, 樂器橫, 籩豆橫, 服玩函, 哀册函, 贈玉函, 贈帛函, 標信橫, 硯匣橫, 杖橫, 几橫 등이 놓여졌다.

장신구 중 구슬은 능내리 석실분 129점, 석릉 28점, 가릉 11점, 곤릉 3점이 출토되었다. 능내리 석실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구슬과 함께 장신구가 출토되었고, 가릉에서도 옥제와 골제 장식품을 비롯한 많은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그만큼 피장자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왕릉의 위계는 정자각의 크기와 석물의 치장정도, 석실 및 내부 시설의 크기 그리고 출토유물의 다소 등을 고려하면 곤릉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석릉, 능내리 석실분, 가릉 순이다.[22]

Ⅴ. 피장자의 비정

1. 순경태후 가릉과 성평왕후 소릉

『輿地勝覽』에 의하면 가릉은 在府南 24리에 위치한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그 위치는 현재의 양도면 능내리로 보았다. 그리고 능내리에 있는 석실분 1기가 가릉으로 비정되어 지금까지 전승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믿어 왔다. 하지만 능내리에 또 다른 석실분이 존재하고 있음이 今西龍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고(今西龍 1916), 이에 대한 발굴결과가 공표되면서 가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國立文化財硏究所 2007).

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가릉과 능내리 석실분에서 출토된 인골의 성별 분석결과 모두 여성이라는 점, 두 무덤 모두 장신구류가 많이 출토되었다는 점, 그리고 능내리 석실분에서 왕비의 상징적 문양으로 알려진 봉황문이 새겨진 은제도금장식이 출토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장자를 왕비로 보고, 강화천도를 전후한 시기에 사망한 왕비들 중 무덤이 찾아지지 않는 안혜태후와 성평왕후 중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무덤에서 출토된 청자가 다른 3기의 강화 고려왕릉에 비해 가장 빠르다는 점을 들어 이 무덤의 주인공을 강화천도 직전 먼저 사망한 안혜태후로 추정

22) 능역의 규모와 외부 석물의 치장정도로 해당 왕릉의 위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능역 외부의 모습은 수차에 걸친 도굴과 수개과정에서 개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재가 추가되었을 수도 있다. 때문에 개보수 과정에서 구조 변경이나 신재 추가가 거의 불가능한 것은 석실의 내부구조에서 해당 왕릉의 위계를 살펴야 한다고 본다.

하였다(國立文化財硏究所 2007). 이런 추정에는 현재의 가릉이 순경태후의 무덤이 분명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보다 먼저 사망한 왕비를 찾다보니 안혜태후가 찾아진 것이다.

그러나 『高麗史』 기록을 보면 안혜태후는 1232년 6월 초하루 경술일에 사망하였고, 같은 달 신유일에 장사지냈다.[23] 12일의 장례기간을 거쳐 개경 어디엔가 분명히 무덤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달 을축일에 강화천도가 전격적으로 단행되었으며, 고종은 7월 6일 개경을 떠나 객관에 머물렀다.[24] 이때까지 궁궐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과연 안혜태후의 무덤을 이장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능내리 석실분의 피장자는 누구일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릉과 능내리 석실분의 피장자는 모두 여성이다. 그리고 능내리 석실분에서 출토된 청자는 석릉과 곤릉보다 선행하는 양식이다. 그리고 능내리 석실분이 가릉보다 구릉의 상부에 입지하고 있어 가릉보다 먼저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가릉의 석실 벽석 축조에 괴임으로 사용된 기와가 능내리 석실분 능역에서 출토된 기와와 동일하기 때문에 능내리 석실분이 가릉보다 먼저 축조된 것은 확실하다(國立文化財硏究所 2007). 능내리 석실분의 능역은 4단 구성이고, 12각 호석을 두른 봉분과 난간, 석수와 석인, 정자각 등 13세기 당시의 일반적인 고려왕릉의 능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반면 현재 가릉은 석실을 지상에 만들고 석실 주위를 봉석 · 봉토하였으며, 봉토 가장자리를 따라 8각의 호석과 난간을 돌려놓아[25] 고려왕릉의 일반적인 능제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그리고 석실 내부 구조는 모두 고려왕릉의 일반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석실과 관대의 규모는 능내리 석실분보다 작다. 이와 같이 축조의 선후 및 위계로 미루어 볼 때 능내리 석실분이 가릉보다 먼저 축조되었고 위계도 높았다고 보며, 여기에 출토된 청자의 편년은 석릉이나 곤릉보다도 빠르다. 결국 강화에서 발굴된 4기의 왕릉 중 가장 빠른 무덤이 바로 능내리 석실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강화에서 사망한 왕비는 순경태후, 원덕태후, 성평왕후 등 세 사람이다. 이중 원덕태후의 무덤은 『輿地勝覽』 이후 양도면 길정리에 남아 있는 2기의 석실분 중 하나로 비정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순경태후와 성평왕후가 남는다. 앞서 살펴

23) 『高麗史』 世家 高宗19 "六月 庚戌朔 王妃王氏薨. 丁巳 崔瑀遣人, 迎前王於紫燕島. 辛酉 葬王后".
24) 『高麗史』 世家 高宗19 "乙酉 王發開京, 次于昇天府. 丙戌 入御江華客館".
25) 1916년 조사 당시 난간석주와 동자석주가 각 6개씩 유존하고 있었다고 하므로 난간을 돌렸음은 분명하다.

본 바와 같이 현재의 가릉을 포함한 양도면 능내리의 2기 석실분의 피장자는 모두 여성이다. 따라서 능내리의 2기 석실분은 순경태후와 성평왕후의 무덤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가릉에 매장된 순경태후는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살펴보자. 순경태후는 고종 22년(1235) 원종이 태자에 오르자 태자비가 되었고 이듬해 충렬왕을 낳았다. 1237년 7월 29일 사망하자 본가로 옮겨 초빈하였다가 10월 7일 가릉에 장사지냈다고 하므로 장례기간이 66일에 이른다.[26] 고종은 세손(충렬왕)을 생산한 며느리가 16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자 비통한 마음을 담아 '東宮妃主哀册文'을 지었다. 그만큼 며느리의 갑작스런 죽음을 애통해 하였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고종은 며느리의 무덤 조영에 많은 정성을 들였을 것이고 최대한 격식을 갖추어 장례를 치렀다고 생각된다. 장례기간이 긴 것은 그런 이유이다.

그리고 성평왕후는 고려 제21대 희종의 비이다. 1211년(희종 7년) 4월 정식왕비인 함평궁주로 봉해졌으나, 그해 12월 희종이 내시 왕준명 등과 함께 당시 실권자였던 최충헌을 축출하려다 실패하여 도리어 폐위 당하였다. 결국 함평궁주는 불과 8개월간 왕비였던 셈이다. 강도시기인 1247년 8월 사망하여 소릉에 장사지냈고,[27] 시호를 성평이라 하였다. 비록 장녀가 고종비인 안혜태후였으나 태후가 강화천도 직전 사망하였기 때문에 왕실의 어른으로서 대접받기보다는 폐왕인 희종과 비슷한 처지였을 것이다. 특히 사망 당시 실권자는 자신의 남편인 희종을 강화도로 유배시킨 최우였으므로 상기 사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高麗史』에는 사망연도와 능호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輿地勝覽』에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순경태후는 태자비이자 세손인 충렬왕을 생산한 며느리였고, 성평왕후는 장모였던 셈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고종은 어린 나이에 비통하게 사망한 순경태후의 무덤을 보다 장엄하게 조영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가릉이 소릉보다 위계가 높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상기 두 사람의 사망연도와 위계를 고려하면 먼저 축조된 능내리 석실분이 순경태후 가릉이고, 현재의 가릉은 성평왕후 소릉으로 판단된다. 이런 피장자의 비정의 오류는 아마도 순경태후의 무덤을 비정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가릉만 확인하고 후방에 있는 능내리 석실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경사가 급한 곳에 위치한 능내

26) 『東國李相國集』 券36 誄書 同前哀册文.

27) 강화에서 성평왕후 소릉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표조사에서 소릉 추정지로 내가면 산162번지로 보고 있으나 현장을 답사한 결과 이곳에는 도굴된 판석조석곽묘가 확인되나 석실분은 보이지 않는다.

리 석실분의 봉분이 결실되고 능역 내 석물들이 후방 토사에 의해 묻혀 능역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으로 이해된다.[28)]

2. 희종 석릉과 원덕태후 곤릉

현재 양도면 길정리에는 2기의 석실분이 남아 있으며, 이중 하나는 희종 석릉, 나머지 하나는 원덕태후 곤릉으로 비정되어 있다. 두 릉은 850m의 거리를 두고 서쪽이 석릉, 동쪽이 곤릉이다.

앞서 피장자의 비정과정을 검토한 결과, 『輿地勝覽』 이후 서쪽이 석릉, 동쪽이 곤릉으로 비정되었으나 기록에 나타난 강화부에서의 거리를 고려하면 두 왕릉이 서로 뒤바뀌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고고자료를 검토해 보면 현재의 곤릉이 석릉보다 무덤 조영에 더 많은 공력을 들였으며, 유물도 훨씬 더 많이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능역의 호석수가 곤릉은 12각이고 석릉은 8각으로 조립되어 있고, 석실과 관대의 규모는 곤릉이 크다. 출토유물 중 부장유물의 다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철제못의 수량도 곤릉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에 더해 곤릉 출토 석양은 실제와 같이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바닥 전면에 전돌을 깐 정자각이나 현문을 폐쇄하고 거행된 제사흔적 등에서 곤릉이 단연 위계가 높은 무덤임을 알 수 있다.[29)]

석릉에 묻힌 희종은 고려 제21대 국왕(재위:1204~1211년)이다. 신종과 선정왕후의 맏아들로 1200년 태자로 책봉되고 1204년에 신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1211년 왕준명 등과 함께 당시 정권을 휘두르던 최충헌을 죽이려다가 실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도리어 최충헌에게 폐위를 당하여 강화로 쫓겨났고 이후 자연도, 교동도로 떠돌다 1219년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다. 개경으로 돌아와 3녀 덕창궁주를 최충헌의 아들 성(瑆)과 혼인시켰다. 그러나 1227년 복위의 음모가 있다는 무고로 최우에 의하여 다시 강화도와 교동도를 떠돌다 1237년 8월 10일에 법천정사에서 사망하였고, 낙진궁에 빈소를 차렸다가 10월 20일에 석릉에 장사지냈다. 장례기간이 69일 소

28) 실제 발굴전 이곳에서는 석실 입구 일부와 1점의 난간동자주만 수풀 속에 노출되어 있어 봉분의 형태나 능역의 규모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발굴결과 석실은 물론이고 난간과 석수, 정자각 등이 원위치를 유지한 채 매몰되어 있었다.

29) 한편 석릉에서는 구슬을 비롯한 장신구가 유독 많이 출토되었고, 곤릉에서는 수레부속구인 차축두가 출토되었다. 다소 추상적이긴하지만 이런 출토유물의 차이가 피장자의 성별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즉 장신구가 많이 출토된 석릉은 여성, 차축두가 출토된 곤릉은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요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폐위된 희종이 최충헌과 사돈을 맺으면서 개성에서의 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과 정확한 사망시점과 장소, 그리고 빈소가 '낙진궁'이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는 점이다.

원덕태후는 강종의 비이자 고종의 어머니이다. 1239년 5월 사망하여 곤릉에 묻히었다. 사망 당시 아들인 고종이 재위 중이었으므로 극진한 예우로 장례를 치렀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高麗史』에는 사망시점과 능호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輿地勝覽』에는 장지의 방향과 강화부에서의 거리만 언급되어 있다.

결국 희종은 실권자인 최우에 의해 강화로 쫓겨나 그곳에서 사망하긴 하였으나 왕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당시 산릉제도와 장례절차에 따라 매장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원덕태후는 사망당시 비록 아들이 재위 중이긴 하였으나 능제상 '태후'로서의 예우를 받고 장례가 치뤄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규모와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위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현재의 곤릉이 희종 석릉이고, 현재의 석릉이 원덕태후 곤릉일 가능성이 높다.

3. 인산리 석실분과 연리 석실분

『高麗史』에 의하면, 강화천도가 이루어진 1232년에 세조와 태조의 재궁을 강화로 옮겨 이장하였고[30], 1243년 다시 세조와 태조를 무덤을 개골동으로 이장하였다.[31] 그리고 1261년 원종이 세조 昌陵과 태조 顯陵을 참배하고 있다.[32] 다시 말해 세조와 태조의 재궁은 강화천도 당시 개경에서 강화로 옮겨와 이장하였고, 어떤 연유인지를 알 수 없지만 다시 개골동으로 재이장이 추진되었다. 이때까지는 능호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이장이라고만 표현하였다. 그러나 원종의 참배기사는 분명히 능호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에 두 왕릉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본다. 물론 참배기사의 능호가 개경의 원능을 지칭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때 두 재궁은 분명 강화에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화의 왕릉을 참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조와 태조의 재궁은 1270년 개경천도 때 다시 강화에서 개경의 이판동으로 옮겨 임시로 모시

30) 『高麗史』 世家 高宗19 壬辰年 "是年, 移葬世祖大祖二梓宮于新都".
31) 『高麗史』 世家 高宗30 癸卯年 "移葬世祖太祖于江華盖骨洞". 이장의 연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풍수와 관련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32) 『高麗史』 世家 元宗2 辛酉年 "甲申 謁昌 · 顯二陵".

었고[33], 충렬왕 2년이 되어서야 원능에 복장하였기 때문이다.[34] 그렇다면 강화에 남아 있어야 할 세조와 태조의 무덤은 각 2기씩이었던 셈이다. 물론 두 기의 재궁을 합장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고려시대 왕릉은 철저히 단실의 석실분으로 조성되었고, 상기 원종의 참배 기사에 분명 '昌顯二陵'이라 하였기 때문에 세조 창릉과 태조 현릉이 각각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상기 원종의 선대 왕릉 참배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1261년 9월 갑신일 단 하루만에 창릉과 현릉을 참배하였다는 기사로, 이는 두 왕릉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흘 뒤인 9월 정해일에 고종 홍릉을 별도로 참배하고 있음[35]은 상기 두 왕릉과 홍릉이 서로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렇다면 창릉과 현릉의 유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인산리 석실분과 연리 석실분 그리고 개골동 고려왕릉지에 주목하고자 한다.[36] 인산리 석실분은 지표조사 결과 석실의 규모가 강화의 여타 왕릉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하였다. 전면 구릉 경사면을 따라 3단의 평탄대지가 있고 석실의 개석, 전면 문비석 등이 모두 고려왕릉의 일반적 특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리고 연리 석실분은 고려 고종 때 왕족이 죽었을 때 매장하고자 석실을 조성하고 석등과 옥판을 비치하였으나 풍수에 배치되어 가왕릉만 설치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므로 분명 왕릉으로 인식되었다고 생각된다(인천광역시 ·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2).

따라서 인산리 석실분과 연리 석실분이 세조와 태조의 최초 이장지로 판단되며, 이럴 경우 개골동 고려왕릉지는 재이장이 이루어진 곳이며, 원종이 참배한 창릉과 현릉이 바로 이곳인 것으로 판단된다.

Ⅵ. 맺음말

고려왕릉의 묘제는 석실분이다. 강화에도 이런 석실분이 7기 남아 있는데, 이중 4

33) 『高麗史』 世家 元宗11 庚吾年 "是年, 構屋于泥板洞, 權安世祖 · 太祖梓宮, 及奉恩寺太祖塑像 · 九廟木主".
34) 『高麗史』 世家 忠烈王2 丙子年 "甲辰 復葬世祖梓宮于昌陵, 太祖梓宮于顯陵".
35) 『高麗史』 世家 元宗2 辛酉年 "丁亥 謁洪陵".
36) 개골동 고려왕릉지는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산11로 추정된다. 강화읍에서 84번 지방도를 따라가다 보면 강화읍과 선원면의 경계지점에 찬우물고개가 있고 다시 냉정리와 금월리의 경계부분에 대문고개가 있다. 유적은 찬우물고개와 대문고개 사이에 놓인 야산의 동남록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기는 피장자가 비정되어 전하고 있다. 문헌기록을 통해 이 무덤들의 피장자의 비정과정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먼저 순경태후 가릉의 위치는 양도면 능내리가 분명하다. 그러나 능내리에는 2기의 석실분이 인접하여 있다. 이는 현재의 가릉을 비정할 당시 능내리 석실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능역이 흐트러져 폐고분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결국 이 두 기의 무덤 중 어느 것이 순경태후의 무덤인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의 무덤인지가 의문이다. 다음으로 석릉과 곤릉은 문헌상 강화부에서의 거리가 석릉이 가깝고 곤릉이 먼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의 비정된 석릉과 곤릉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화에서 사망한 성평왕후 소릉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인산리 석실분과 연리 석실분의 피장자는 누구인지 등이다.

강화에서 발굴된 고려왕릉은 능내리 석실분, 가릉, 곤릉, 석릉이다. 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축조 선후관계는 능내리 석실분 〉 곤릉 ≧ 석릉 〉 가릉의 순이고, 왕릉 간 위계는 곤릉 〉 석릉 〉 능내리 석실분 〉 가릉의 순이다.

강화에서 사망한 왕과 왕비는 순경태후(1237), 희종(1237), 원덕태후(1239), 성평왕후(1247), 고종(1259)이다. 이 중 고종 홍릉은 위치비정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결국 4명의 무덤을 찾아야 한다. 이 4명 중 가장 먼저 사망한 사람은 순경태후이다. 그리고 여성은 순경태후, 원덕태후, 성평왕후이다. 『輿地勝覽』을 신뢰하면 가릉은 양도면 능내리에 위치하므로 이곳에서 확인된 2기의 석실분 중 하나가 순경태후 가릉이다. 능내리에 있는 2기의 무덤 중 먼저 축조된 것은 능내리 석실분이고, 모두 피장자가 여성이며, 위계는 능내리 석실분이 높다. 이럴 경우 원덕태후의 무덤은 길정리에 있는 2기의 무덤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결국 능내리의 두 무덤은 순경태후와 성평왕후가 피장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축조순서가 빠르고 위계가 높은 능내리 석실분이 먼저 사망한 순경태후(1237)이고, 현재의 가릉이 성평왕후 소릉(1247)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석릉과 곤릉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면 곤릉이 확실히 위계가 높다. 그리고 차축두가 공헌된 현재의 곤릉은 피장자가 남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곤릉과 석릉에 피장된 원덕태후와 희종을 놓고 볼 때 희종은 전왕의 예우를 다해 장례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며, 원덕태후는 비록 아들인 고종의 재위기간 중에 사망하긴 하였으나 그 위계가 전왕인 희종의 무덤에는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위계가 높고 남성의 무덤일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의 곤릉이 희종 석릉이며, 현

재의 석릉은 원덕태후 곤릉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으로 본다면 문헌상의 거리 기록과 일치한다.

그리고 인산리 석실분과 연리 석실분의 피장자는 개성에서 강화로 천도하면서 이장한 세조와 태조의 무덤인 것으로 보았다. 세조와 태조의 무덤은 강도천도와 함께 개경에서 강화로 이장되었고, 1243년 2기 모두 개골동으로 재이장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강화에 존재하여야 하는 왕릉은 모두 9기여야 하나 개골동의 고려왕릉지는 현재 그 유지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7기의 석실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 7기의 석실분이 확인되었다. 이 7기 석실분 중 상기한 바와 같이 5기의 석실분은 피장자를 비정하였다. 결국 남은 2기의 석실분은 세조와 태조의 최초 이장지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강화 고려왕릉은 개성 고려왕릉에 비해 규모면에서 다소 축소되었다. 그리고 능역에 배치된 치장석물은 형상화하여 간략히 표현하거나 생략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석수와 석인은 방주형으로 변하였고 호석은 8각으로 간략화한 경우도 있다. 개성 고려왕릉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석면의 십이지상과 석실내부 벽화는 모두 생략하였으며, 할석을 벽석재로 사용한 경우도 다수이다. 그리고 가릉은 석실을 지상에 구축하고 석실 외부를 할석으로 덮었으며, 능역 전체를 할석을 채운 특이한 구조이다. 이와 같은 강화 고려왕릉의 소형화 · 간략화의 경향은 무인정권의 득세, 몽골과의 항쟁 등 대내외적인 시대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투고일 2017.4.12 | **심사완료일** 2017.5.25 | **게재확정일** 2017.6.5

참고문헌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麗朝王陵謄錄』
『江都誌』
『餘地圖書』
『江都府志』
『東國李相國集』
『朝鮮古蹟圖譜』
강경숙, 2012, 『韓國陶磁史』.
國立文化財硏究所, 2003, 『江華碩陵』 發掘調査報告書.
_____, 2007, 『江華 高麗王陵』 發掘調査報告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傳정조대왕초장지』 발굴조사보고서.
今西龍, 1916, 『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김인철, 2010, 『고려왕릉연구』, 사회과학출판사.
이상준, 2012, 「고려왕릉의 구조 및 능주(陵主) 검토」, 『문화재지』제45권 제2호,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16, 「강화 고려왕릉의 구조와 성격」, 『고려 강도의 공간구조와 고고유적』학술회의 자료집, 인천시립박물관 · 강화고려역사재단.
李羲仁, 2006, 「京畿地域 高麗古墳의 構造와 編年」, 『고려시대의 고고학』, 서울경기고고학회.
_____, 2016, 『고려 강화도성』, 혜안.
인천광역시 ·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2, 『강화의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장경희, 2008, 『고려왕릉』, 예맥출판사.
한성욱, 2003, 「석릉 출토 청자의 성격」, 『강화 석릉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doi.org/10.20292/jcich.2017.23.63

A Study of Persons Buried in the Royal Tombs of the Goryeo Dynasty in Ganghwa

Lee, Sang-Jun(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re are seven Stone Chamber Tombs in Ganghwa, thought to be royal tombs of Goryeo Dynasty, four of which are presumed to have known identity for the buried persons: Gojong's Hongreung, Empress Dowager Sungyeong's Gareung, Heejong's Seokreung, and Empress Dowager Wonduk's Gonreung. Except for Gojong's Hongreung Royal Tomb, the remaining three tombs have questionable identities of the buried, based on literature and archaeological evidence.

Regarding the Empress Dowager Sungyeong's Gareung Royal Tomb, it is not clear which which of the two tombs is Gareung, considering the Neungnae-ri Stone Chamber Tomb discovered in the same area. Comparing the two tombs, Neungnae-ri was built first, and the buried person shows higher class. Osteological analysis shows both persons to be females. Of the three empress dowagers who died in Ganghwa, Empress Dowager Wonduk's tomb was ascertained, and the remaining two tombs likely belong to Empress Dowager Sungyeong's Gareung and Empress Songpyeong's Soreung. Since Empress Dowager Sungyeong held a higher place in the hierarchy, Neungnae-ri Tomb seems to be Gareung. Current Gareng, then, is thought to be Soreung.

It is not certain how to distinguish between Seokreung Royal Tomb from Gonreung Royal Tomb since it does not accord with the record of location in the historical archives. Presuming they are indeed Royal Tombs, Insan-ri and Yeon-ri Stone Chamber Tombs are highly likely to be secondary burials for Sejo and Taejo, when the capital moved.

In summary, this study concludes the following identification of the buried for Royal Tombs in Ganghwa: First, it is assumed that Neungnae-ri Stone Chamber Tomb is Empress Dowager Sungyeong's Gareung Royal Tomb, and the present Gareung is

Empress Dowager Seongpyeong's Soreung Royal Tomb. Second, the present Gonreung Royal Tomb is Heejong's Seokneung Royal Tomb, and the present Seokreung Royal Tomb is Empress Dowager Wondeok's Gonreung Royal Tomb. Third, Insan-ri and Yeon-ri Stone Chamber Tombs belong to Sejo and Taejo.

Key words : The Royal Tombs of the Goryeo Dynasty, The Stone Chamber Tomb, Neungnae-ri Stone Chamber Tomb, Gareung Royal Tomb, Gonreung Royal Tomb, Seokreung Royal Tomb, Insan-ri Stone Chamber Tomb, Yeon-ri Stone Chamber Tomb